

‘AI컴퓨팅센터’ 광주·전남 상생이 답

심층분석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인공지능 (AI) 컴퓨팅센터’ 최종 부지로 전남 해남이 확정되면서 ‘AI 대표도시’를 향한 광주의 7년 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유치전 막판 눈물로 호소했던 강기정 시장의 모습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광주가 직면한 위기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단순히 지역 간 경쟁의 승패를 넘어 국가 대형 기술 프로젝트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광주·전남이 갈등이 아닌, 새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민간 70% 지분·경영권…‘경제성’ 초점
유치전의 운명을 가른 것은 광주의 제안이 약해서가 아니었다. 경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공공이 50%의 지분을 갖고 사업을 주도하려 했으나, 수익성 문제로 두 차례나 유찰되는 실패를 겪었다. 결국 정부는 민간에 70% 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넘기고, 국산 반도체의 무사 사용 같은 독소 조항을 없애는 등 사업 구조를 ‘민간 주도 수익성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했다.

이러한 변화는 평가의 무게추를 ‘정책적 명분’에서 ‘경제적 효율성’으로 옮겨 놓았다. 삼성 SDS 컨소시엄의 선택은 철저히 비즈니스 논리에 기반한 결과다.

‘해남 솔라시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전기료, 광활하고 값싼 부지,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수적인 용수 확보 등 압도적인 비용 경쟁력을 갖춘 곳이다. 장기적인 운영비(OPEX) 절감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선 최강의 파트너였던 셈이다.

반면, 광주는 지난 7년간 구축한 AI 집적단지, 160여개 입주기업, 인재 양성 시스템 등 ‘생태계와 시너지’를 내세웠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는 부합했지만 바뀐 규칙 아래서는 민간의 투자 매력을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

결국 광주는 ‘시너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전남은 ‘비용 절감’이라는 유형의 가치를 제안했고 컨소시엄은 후자를 선택했다.

◇위기의 광주·기회의 전남…결국 상생

핵심 인프라를 잃은 광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당장 6천억원 규모의 AI 2단계 (AX 실증밸리) 사업의 동력이 약화됐고 더 나은 인프라를 찾아 기업들이 이탈할 수 있다는 ‘생태계 공동화’ 우려마저 나온다.

경쟁의 룰 ‘공공성’→‘수익성’ 기준 전환
市‘실증·상용화’…道‘완전 생태계’ 필요
조인철 발의 AI기본법 광주만 요건 충족
정준호 “광주·전남 장점 만나면 시너지”

광주시 관계자들이 전남도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 지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인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바로 그것이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될 이 법은 정부가 ‘AI

어)와 광주의 풍부한 연구 인력 및 기업 생태계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거대 AI 벨트 조성은 꿈이 아니다.

◇광주, ‘실증·상용화 허브’ 재도약 절실
광주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AI 도시’라는 기존 목표에서 벗어나 자신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선택과집중’ 전략으로 선회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제1호 AI 집적단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과된 AI 기본법을 최대한 활용해 클러스터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국비 지원을 확보해 생태계 붕괴를 막는 핵심 안전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AI 실증·상용화 허브’로 재포지셔닝해야 한다. AI 2단계 사업의 목표를 컴퓨팅 파워



“광주·전남 함께 가야” 국가AI컴퓨팅센터 후보지가 전남으로 결정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 북구 오룡동의 국가AI데이터센터 (사진 위)와 AI컴퓨팅센터 입지인 해남 솔라시도 전경. /김애리 기자·〈전남도 제공〉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사실상 광주가 유일하다. 컴퓨팅센터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광주 AI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이제 광주와 전남은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전남의 압도적인 인프라 (하드웨

어 의존하는 거대 모델 개발에서, 자동차·헬스케어 등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AI 전환 (AX) 실증’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하는 이 유다.

결국 AI 기본법의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활용해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AI 테스트베드 만들어야 한다. 전남이 ‘엔진 공장’이라면, 광주는 그 엔진으로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완성차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2면에 계속 /김진수 기자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 입상작 발표

정기섭 作 ‘유혹’ 영예의 대상



정기섭 作 ‘유혹’

충장로의 유리 쇼윈도 속, 옷을 입은 마네킹 위로 거리 간판과 불빛, 그리고 반사된 인물의 모습이 포개진다. 유리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도시의 또 다른 풍경이 만들어진다. 사진 제목인 ‘유혹’은 그러한 시각적 중첩이 주는 묘한 긴장감을 담고 있다. 화려함과 일상의 경계가 모호하게 스며드는 그 순간, 도시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유리 너머의 세계가 새로운 이야기로 태어난다.

빛의 각도와 유리의 반사가 빚어낸 찰나를 포착한 정기섭 (75·광주)씨의 작품 ‘유혹’이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14·15면
학생부 공동 대상은 최형준 (광주 상무고 1)군과 김선우 (서울 경문고 2)군에게 각각 돌아갔다.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국 제교류센터에서 출품작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일반부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특선 22점, 입선 227점, 학생부 공동대상 2점, 우수상 1점, 특선 5점, 입선 26점 등 총 287점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역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시선과 개성을 담은 작품들이 출품돼 수준 높은 경연의 장이 펼쳐졌다”며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연령대의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시선을 사진으로 풀어내며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다”고 총평했다.

이어 심사위원단은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사진 기법을 능숙하게 활용하면서도 내용적으로 깊

이를 더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며 “학생부에서도 표현의 신선함과 주제 해석의 진정성이 돋보여 심사 과정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일반부 1천300여점, 학생부 200여점 등 총 1천500여점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강춘자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동우회장은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은 오랜 시간 지역 사진 문화의 저변을 넓혀온 뜻깊은 대회로 이제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해마다 새로운 감각과 시도로 참신한 작품들이 출품되며 대회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동우회장은 “행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분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가능했다”며 “사진인들이 교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창회의 장으로 꾸준히 발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7회 광주매일신문 전국사진대전이 배출한 올해의 초대작가상은 ‘Hand’를 출품한 최인옥씨가 수상했다.

수상작은 21일 본보 홈페이지 (www.kjdaily.com)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시상식은 11월12일 광주문화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명진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독특하게 읽어줍니다.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 공모

광주매일신문과 한국관광연구학회가 ‘제6회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을 공모합니다. 광주매일신문 관광대상은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축제 및 관광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기관, 관련 분야 전문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가 등을 발굴하고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축제 등 관광산업 발전에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있는 지자체 및 기관, 전문가, 기업, 관련분야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주최·주관 | **광주매일신문** · **(사)한국관광연구학회**

공모부문 및 시상

▶종합대상 ▶콘텐츠 부문 ▶MICE 부문 ▶숙박업 부문
▶축제 부문 ▶여행업 부문 ▶특별 부문

접수자격

광주·전남·전북 자치단체,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등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dkyo@kakao.com)

접수마감

2025년 11월 14일(금)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9)